Curriculum Vitae

(세션 1) 컨테이너 해운의 현재와 미래

이응혁,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 실장

이응혁 실장(1976년생)은 2018년부터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지원실장으로 재직해왔다. 11살된 쌍둥이 아들의 아빠이며 2005년 부산항만공사에 입사하여 마케팅, 물류기획, 국제협력, 해외사업개발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항만물류 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해왔다.

컨테이너 항만 및 물류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, 국제항만협회(IAPH) 중간이사회(시드니, 2014), 유럽항만기구(ESPO) 회의(스웨덴 예테보리, 2014), 국제물류협회(FIATA) 세계대회(부산, 2022) 등 주요 국제회의에 연사로 참여했다. 제8차 항만당국 라운드테이블(상하이, 2023년 9월)에서 '코로나19 이후의 컨테이너 해운 변화와 항만에 대한 시사점'을 주제로, 제9차 항만당국 라운드테이블(바르셀로나, 2024년 9월)에서 '미-중 무역 갈등이 니어쇼어링과 생산 이전에 미치는 영향'을 주제로 발제했다.

이응혁 실장은 2023년 2월부터 지역 일간지인 부산일보에 다음의 주제로 분기별 칼럼을 기고해왔다.

- 일본 컨테이너 물류에서 부산항의 역할
- 물류에서 공(空)컨테이너의 역할과 인식
- 컨테이너선 대형화의 한계와 함의
- 항만 디지털화의 도전 과제
- 제2차 글로벌 물류 위기의 위험
- 해운·항만 용어의 복잡성
- 미국 내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부재
- 항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
- 니어쇼어링 트렌드와 글로벌 공급망 혼란

고려대학교에 입학해 건축공학을 수료하고 2003년 동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런던 소재 카스비즈니스스쿨(Cass Business School)에서 해운, 무역 및 금융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해운경제와 글로벌 무역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. 이어 2019년 12월에는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항만운영·관리 박사과정을 모두 이수하며 전문성과 학문적 발전에 대한 한결 같은 결의와 헌신을 다시금 보여주었다.